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²⁹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³⁰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³¹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³²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³³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³⁴너희가 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눅6:29-34)

내적인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길 원하는 대신 천국 천사들 처럼 천적 체어리티(*heavenly charity*)로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들은 주님은 모든 선 안에 있

는 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이 가진 선을 따라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당한 악 때문에 원한(*enmity*)과 증오(*hatred*), 복수심(*revenge*)에 불타면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신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주님의 보호를 쫓아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 E.556:8)

※ AE(*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위 556번 글 8항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l men, as the angels of heaven are, do not wish the retaliation of evil for evil, but from heavenly charity they forgive freely; for they know that the Lord protects from the evil all who are in good, and that He protects according to the good with them, and that He would not protect if on account of the evil done to them they should burn with enmity, hatred, and revenge, for these drive away protection.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이는 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And they had hair as the hair of w omen, and their teeth were as t hose of lions)에 관한 주석 중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And their teeth were as those of lions)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이빨’은 이해, 이성 관련, 자연적 삶의 정점이랄 수 있는 감각적인 것들(the sensual things which are the ultimates of the n atural life in respect to the und erstanding)을 말합니다.

오늘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¹⁹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²⁰상처에는 상처로,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레24:19-20)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복, 복수, 앙갚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응의 법칙(the law of retaliation)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보응의 법칙이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악이 돌아오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선이 돌아온다는 주님의 법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보응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³⁸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³⁹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5:38-3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응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응 법칙에 의해 스스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²⁹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³⁹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⁴⁰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5:39-4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일 문자 그대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란다고 겹옷까지도 벗어줘야 한다면, 신앙인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질 것입니다. 더구나 새 교회가 가르침에서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it is not charity to give to the evil what they ask and desire, AC.9174:3)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뺨은 내적 진리를 뜻하고요, 옷은 겹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진리와 내적인 진리는 어떻게 다르니까? 사실 이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는 말씀의 속 뜻이고요, 외적 진리는 말씀의 겉 뜻, 곧 문자적 진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진실한 자의 뺨을 때리고, 고발하여 옷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악한 자들은 진리를 공격하고 흠집을 낸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공격합니다. 참된 진리를 거짓 진리라 비방하고 욕하기도 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훼방, 그들의 선의를 마음대로 왜곡하기도 합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니다. 이런 것이 모두 진리를 공격,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왼뺨을 내주고, 옷을 벗어주라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과 논쟁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거짓 진리를 진리라 하고, 진리는 거짓이라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의 진실을 왜곡할 때, 자신의 결백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 것이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때, 주님과 관계가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0,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³⁰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³¹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 역시 보응의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응 법칙을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웃한테 대접받고자 하지 않고 먼저 이웃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대접하는 방법으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거나, 또는 빌려준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영적 의미로는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자기 것을 주는 것은 참된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자기가 가진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진리를 전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전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지요.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은근히 상대방보다 자신의 믿음이 우월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경우는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진리를 전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6:2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복을 견어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라 하십니다.

다음 32, 33절에서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둡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³²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³³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대가를 바라는 일이며,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하시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거둡나기 전에는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그

눅6:29-34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러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진실을 왜곡, 비방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묵묵히 옳다 믿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오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설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3:27)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이 나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덮어주고 께안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남에게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등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른바 보응의 법칙입니다. 보응의 법칙은 사람은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선한 씨를 뿌린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씨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

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선을 베풀면서도 생색을 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시고,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겹옷도 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문서에는 하늘의 보상을 이웃사랑에서 비롯된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in the internal sense “reward” denotes the delight of the a*

ffection of charity, AC.8002:8).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한번 덮어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어떤 지식, 지성, 이성이 주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시3:7)

아멘

원본

2018-04-1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24(D3)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